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 비교를 중심으로-

이경철¹, 김유미^{2*}

¹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²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Social Worker's Image Perceived b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omparison of the Image of Social Worker and Nurse-

Kyung Cheol Lee¹, Yu-Mi Kim^{2*}

¹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Jeong College

²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차이,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련내용 경험,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남 S시 소재 중·고등학생 386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이미지가 사회복지사 이미지 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련 내용 경험을 분석 한 결과 TV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TV를 중심으로 한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학생들에게 전공학과나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age of social-workers and nurs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determine the experience related to social workers and the role of social workers projected in the medi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6 stud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 located in S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Oct. 15, 2013 to Nov. 23, 2013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A comparison of the image of nurses and social workers in two groups showed that middle school students tended to have a more positive image of nurses tha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image of nurses appeared to be more positive than that of social work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s exposed in media, the students received most of their information on social workers from TV.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y to help students choose a major or a job by reinforcing mass media monitoring based on TV, which may have a major impact on the image of social workers and provide them with the correct information on the profession.

Keywords : Social Worker, Nurse, Image, Students, Media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암 및 퇴행성질

병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반대중의 간호 및 사회복지 관련 욕구는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는 추세이다.

*Corresponding Author :Yu-Mi Kim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el:+82-55-751-7914. email:hambo2628@hanmail.net

Received January 21, 2016

Revised (1st February 29, 2016, 2nd March 2, 2016)

Accepted March 3,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의료계와 사회복지계는 교육과 함께 4대 휴먼서비스 (Human Service) 조직으로서[1],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대상을 만날 수 있는 이타주의적인 직업이며 사랑과 봉사, 소명의식, 가치관 및 윤리의식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돌보는 유사점이 있으며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2].

이러한 점에서 학제간 연계 개입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3]. 또한 보건·복지통합 및 연계 서비스의 효과에 관한 연구[4,5] 들은 두 분야간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보건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보건·복지 협력 및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사례관리자가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 분야 간에 다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이미지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일방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고정화된 이미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고정화된 이미지는 업무수행 시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6] 올바른 전문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미지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누적 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학생들에게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르게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7].

오늘날 우리는 휴대폰, TV, 인터넷,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영상이미지를 접하게 되며 성장기 학생들도 이러한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대중 매체로부터 사회복지사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고, 부정적이며 편향된 시각을 얻게 된다고 한다[8,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할 기회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들 매체에 비친 사회복지사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도 함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관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보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10], 사회복지 전공

학생과 비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에 관한 인식을 사회복지사, 의사 및 교사에 대한 비교 연구[11], 타분야 대인원조전문직인 의사, 간호사, 상담심리사, 목회상담가와 사회복지사의 대중적 이미지에 대한 비교 연구 [1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연관분야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공 및 업무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미지 조사 연구[13] 등이 있다.

국의 연구로는 대인원조 전문직과의 비교[14,15],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16-18], 대중매체에 나타난 이미지[19,20], 사회복지사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 [21] 등이 있다. 국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사 이미지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22].

이러한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하고, 매체를 통해 인지하게 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하고 매체를 통해 인지하게 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 차이를 파악한다.
- 중·고등학생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련 내용 경험 유무를 파악한다.
- 중·고등학생들이 매체를 통해 인지하게 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 이미지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S시 소재 중·고등학교 각 2개교씩 4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고 각 학교별 해당 학년의 3개 학급을 임의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였으며 선정된 학교의 학교장과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직접 방문과 전화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수집은 학생들의 학교현장의 보호자인 담임교사가 배석한 교실에서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구에 참여여부를 선택할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 동의를 작성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응답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조사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없으며 응답결과는 오직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중학생 200부, 고등학생 200부를 배부하였고 총 400부 중에서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386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복지사 이미지

사회복지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김정희[1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이미지 8문항, 공공관계성 이미지 8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정희[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3$ 이었다.

2.3.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양일심[23]이 개발한 3영역 2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이미지 10문항, 사회적 이미지 7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고 부정문항은 점수를 역환산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이

미지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양일심[23]이 개발할 당시 Cronbach's $\alpha = .93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9$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매체접촉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조사대상자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 5)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190명, 여학생 196명이었으며, 학교급은 중학생이 187명, 고등학생이 199명이었다. 가족/친척 중 사회복지사 유무는 39명, 종교는 ‘불교’가 134명으로 가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Gender	Male	190	49.2
	Female	196	50.8
School	Middle	187	48.4
	High	199	51.6
Having a nurse among the family or relatives	Yes	39	10.1
	No	347	89.9
Religion	christianity	67	17.4
	Buddhism	134	34.7
	Catholicism	8	2.1
	No religion	175	45.3
	Others	2	.5
Total		386	100.0

많았고, 기독교가 67명, 천주교 8명, 기타 2명이었으며, ‘없음’이 175명이었다.

3.2 중·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중·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미지와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반적 이미지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별’과 ‘학교’이었다. ‘성별’은 남학생(M=-.27)이 여학생(M=-.02)에 비하여 간호사 이미지가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비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t=-3.217, p=.001), ‘학교’는 중학교(M=-.24)가 고등학교(M=-.06)에 비하여 간호사 이미지가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비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t=-2.242, p=.026).

사회적 이미지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이었다. ‘성별’은 남학생(M=-.25)이 여학생(M=.05)에 비하여 간호사 이미지가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비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t=-3.456, p=.001).

3.3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검증결과 일반적 이미지는 간호사(M=3.48)가 사회복지사(M=3.33)에 비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t=-3.680, p=.000). 사회적 이미지는 간호사(M=3.05)가 사회복지사(M=2.95)에 비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t=-2.260, p=.024). 전문적 이미지는 간호사(M=3.43)가 사회복지사(M=3.33)에 비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t=-3.028, p=.003).

Table 3. Comparison of Social Worker's image according to nurse's image of the subject

	Social Worker		Nurse		t(p)
	M	SD	M	SD	
Traditional image	3.33	.64	3.48	.70	-3.680**(.000)
Social image	2.95	.71	3.05	.74	-2.260*(.024)
Professional image	3.33	.64	3.43	.66	-3.028**(.003)

*: p<.05, **: p<.01

Table 2. Comparison of Social Worker's image and nurse's Im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	Social Worker's image - Nurse's Image						
			Traditional image		Social image		Professional image		
			M	SD	M	SD	M	SD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90	-.27	.78	-.25	.92	-.11	.70
		Female	196	-.02	.74	.05	.78	-.11	.68
		t(p)		-3.217**(.001)		-3.456**(.001)		.018(.986)	
	School	Middle	187	-.24	.87	-.17	.91	-.10	.78
		High	199	-.06	.65	-.03	.82	-.11	.60
		t(p)		-2.242*(.026)		-1.556(.120)		.166(.868)	
	Having a nurse among the family or relatives	Yes	39	-.14	.89	.11	1.12	.00	.93
		No	347	-.15	.76	-.12	.83	-.12	.66
		t(p)		.058(.954)		1.243(.221)		1.043(.298)	
	Religion	christianity	67	-.21	.75	.06	.84	.04	.66
Buddhism		134	-.10	.69	-.11	.80	-.13	.62	
No religion		175	-.17	.84	-.16	.89	-.16	.72	
F(p)			.569(.566)		1.519(.220)		2.040(.132)		
TV	Yes	224	-.09	.82	-.10	.83	-.06	.67	
	No	162	-.22	.70	-.10	.91	-.17	.71	
	t(p)		1.665(.097)		.036(.972)		1.429(.154)		
Subjects' experience on contents in media	Books	Yes	112	-.15	.87	-.01	.84	-.12	.68
		No	274	-.14	.73	-.14	.87	-.10	.69
		t(p)		-.043(.966)		1.300(.194)		-.157(.876)	
	internet Site	Yes	138	-.13	.86	-.09	.79	-.10	.63
No	248	-.15	.72	-.10	.90	-.11	.72		
t(p)		.226(.821)		.125(.901)		.046(.963)			

*: p<.05, **: p<.01

3.4 중·고등학생들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련내용 경험

조사대상자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련내용 경험은 <Table 4>와 같다.

접촉 경험에 대한 다중응답분석결과 TV가 58.0%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35.8%, 서적 29.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Subjects' experience on social worker-related contents in media

		N	%
Media	TV	224	58.0
	Books	112	29.0
	Internet Site	138	35.8

3.5 중·고등학생들이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Table 5>와 같다. TV는 ‘전문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37.9%, ‘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다’가 37.5%, ‘실제의 사회복지사 역할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가 16.5%, ‘의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8.0%였다.

서적은 ‘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다’가 43.8%, ‘전문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35.7%, ‘실제의 사회복지사 역할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가 17.0%, ‘의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3.6%였다.

인터넷은 ‘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다’가 35.5%, ‘전문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34.1%, ‘실제의 사회복지사 역할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가 15.9%, ‘의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13.0%였다.

Table 5. Social Worker's role featured on TV, internet site, book

	TV	Books	Internet site
Far from social worker's actual role	37(16.5)	19(17.0)	22(15.9)
To be a professional	85(37.9)	40(35.7)	47(34.1)
To represent adequately social worker's role	84(37.5)	49(43.8)	49(35.5)
To play an assistant role for the doctor	18(8.0)	4(3.6)	18(13.0)
I do not know	-	-	2(1.4)
Total	224(100.0)	112(100.0)	138(100.0)

3.6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상관분석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사회복지사 이미지와 간호사 이미지는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Among Social Worker's image and Nurse's image of the Subjects

		Social Worker			Nurse		
		Traditional image	Social image	Professional image	Traditional image	Social image	Professional image
Social Worker's image	Traditional image	1					
	Social image	.540**	1				
	Professional image	.509**	.519**	1			
Nurse's image	Traditional image	.332**	.278**	.414**	1		
	Social image	.258**	.287**	.323**	.610**	1	
	Professional image	.259**	.203**	.441**	.563**	.649**	1

** : p<.01

4. 논의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하고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련내용 경험과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에 대한 느낌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이미지 개선 방안을 파악하여, 이들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1.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미지 비교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 이미지는 간호사 3.48, 사회복지사 3.33이었으며 사회적 이미지는 간호사 3.05, 사회복지사 2.95 였고, 전문적 이미지는 간호사 3.43, 사회복지사 3.33으로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에 비해 다소 높았다. 연구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김정희 [13]의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미지 수준은 일반적 이미지 3.45, 사회적 이미지 3.56, 전문적 이미지가

3.13으로 사회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학 전공학생과 비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홍직[11]의 연구결과 전문직 인식 요건은 5점 기준에 3.93로 나타났다.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지식과 실질적 기술의 보유여부(4.47)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 반면에 직업이 제공하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력의 정도(3.69)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와 교사 두 직종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직으로서의 비교 결과, 의사(4.22), 교사(3.85), 사회복지사(3.52) 순으로 높은 전문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전공학생은 비전공학생에 비해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다고 인식하였으나(3.80:3.33), 사회복지학 전공학생은 비전공학생에 비해 사회복지사가 금전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입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38:1.91).

강철희, 최명민[12]의 연구에서 전문직 5개 직종(상담심리사, 목회상담가, 정신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해 대중들이 지각하는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사의 대표적 이미지는 실제성과 편안함이라는 이미지였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이 커짐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독자적인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며, 사회복지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의 독자적 진출분야 등을 소개함으로써 전문적 이미지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속성이나 전문직 판단 기준과 관련된 내용[24-26]과 학력 인플레이션 및 자격기준의 문제와 더불어 양적 성장에 더하여 사이버대학 및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과잉공급 현상은 교육부 실로 이어져[27], 준비된 사회복지사 배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문직종 중 이미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한 직종은 간호사 집단이며, 그 조사대상도 병원간호사, 환자, 간호대학생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학교교사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라는 인식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간호사의 일반적 이미지는 남학생이 3.60으로, 여학생 3.37에 비하여 다소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3.55)이 고등학생(3.41)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사의 이미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는 중학생(3.16)이 고등학생(2.95)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t=2.716$, $p=.007$), 사회복지사의 이미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적 이미지는 여학생(3.07)이 남학생(2.83)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성별이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유의한 차이를 미치고 있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12,28,29].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복지사의 이미지가 다소 높은 결과는 Condie등[28]과 유성경[2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고, 강철희, 최명민[12]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미지가 주관적 지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와 대상의 가치를 논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형성된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므로[30] 학생들에게 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가치관 정립과 미래의 직업관 및 진로선택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2. 중·고등학생들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련 내용 경험 유무와 역할

본 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련 내용 경험과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을 분석한 결과, TV가 58.0%, 인터넷 35.8%, 서적 29.0% 순으로 나타나 TV가 가장 높았다. 인터넷 보급의 일반화와 함께 TV 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획득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사회복지사를 보는 경험은 여전히 TV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김유미, 강영실[31]의 연구에서 초·중·고등학생의 TV를 통해 간호사 관련 내용을 본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TV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에서 TV는 ‘전문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37.9%, ‘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었다’가 37.5% 순으로 나타났다. Godfrey[32]는 TV가 학

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직업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대중매체에 반영되는 사회복지사 이미지는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TV는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므로 TV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시청자들의 지각에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의 현장감 넘치는 활동이나 전문적인 업무 수행 장면들이 드라마 등으로 묘사되어 비취진다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층 더 발전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인터넷은 ‘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현내주고 있었다’가 35.5%, ‘전문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34.1%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글을 신거나 인터뷰,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회복지학이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서적은 ‘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다’가 43.8%, ‘전문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35.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이 접하는 서적에 나타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직으로서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사회복지사 관련 내용을 경험하는 대중매체는 TV가 가장 높았고 TV에서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전문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TV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SNS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여러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이미지 증진을 위해 대중의 현재 이미지를 토대로 한 조사연구(public opinion research)를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의 위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기반으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차이,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련내용 경험,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남 S시 소재 중·고등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이미지가 사회복지사 이미지 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전문직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가치관 정립과 향후 전공학과나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성별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 이미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복지사 이미지 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적 이미지는 여학생이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의 매체별 사회복지사 관련 내용 경험과 매체를 통해 본 사회복지사에 대한 느낌을 분석한 결과 TV가 58.0%, 인터넷 35.8%, 서적 29.0% 순으로 나타나 TV가 가장 높았다.

매체별 사회복지사 내용 접촉 후 느낀점은 TV는 ‘전문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가 37.9%, “실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었다”가 37.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를 중심으로 한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보도되도록 노력하며, SNS를 통해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부분이 담보되어질 수 있기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한 축은 교육제도에서부터 시작될 필요성이 있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라

는 직업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사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을 위해 대중매체에 나타난 사회복지사 관련내용에 대한 분석 연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언한다.
- SNS를 활용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이미지 홍보를 제언한다.
- 사회복지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J. Kim,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eoul; Hakjisa, 2010.
- [2] Y. Y. Kim, E. J. Shin, "A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ident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10, No. 1, pp. 23-49, 2013.
- [3] H. Itzhaky, P. Gerber, R. Dekel, "Empowerment, skill, and values: A comparative of nurses and social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1, pp. 447-455, 2004.
DOI: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3.10.012>
- [4] Y. H. Ann, "Community capacity building and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1, No. 1, pp. 102-109, 2007.
- [5] C. H. Ham, "The evalu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agencies in community welfare practice: The attitudes of practitioners and clients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5, pp. 309-339, 2003.
- [6] E. Brawley, "Mass media and human services : Getting the message acros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85.
- [7] K. H. Huh, B. S. Lee,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aegu,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 Management, Vol. 9, No. 2, pp. 157-173, 1999.
- [8] K. Jackson, "Time for a change- The social work image campaign", Social Work Today, Vol. 4, No. 3, pp. 12, 2004.
- [9] L. M. Frerman, D. Valentine, "Social work goes to the movies: Motivated representation?", 1999.
- [10] W. S. Shin, G. E. Lee, "An approach using Q methodology to analyze the subjective identity of social worker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1, No. 1, pp. 59-84, 2005.
- [11] H. G. Lee,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 social worker as a profession in Korea",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3, No. 3, pp. 151-172, 2007.
- [12] C. H. Kang, M. M. Choi, "A comparative study of the public's image on helping professions: Comparison between social welfare professional and other Professionals", Vol. 59, No. 1. pp. 171-197, 2007.
- [13] J. H. Kim, "Image of the social worker among three different groups", Local government research, Vol. 12, pp. 83-104, 2008.
- [14] C. W. LeCroy, E. L. Stinson,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work: Is it what we think it is?", Social Work, Vol. 49, pp.164-174, 2004.
DOI: <http://dx.doi.org/10.1093/sw/49.2.164>
- [15] A, Rowe, "Put off by social care's image, Community Care", p.38, 2008.
- [16] K. Y. Bargawi, "Social work community services provided by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work center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perception and self-reporting of social work educated and non-social work-educated professionals in SaudiArabia",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USA. 2002.
- [17] S. T. Dennison, J. Poole, J, B. Qaish, "Students' perceptions of social work :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he image of social work among college-99-students", Social Work, Vol. 52, pp. 350-360, 2007.
DOI: <http://dx.doi.org/10.1093/sw/52.4.350>
- [18] M. Hughes, "How schools of social work perceive and are responding to juvenile violence : A national survey", Social Work Education, Vol. 23, pp.63-75, 2004.
DOI: <http://dx.doi.org/10.1080/0261547032000175737>
- [19] M. L. Freeman, D. P. Valentine, "Through he eyes of Hollywood : Images of social workers in film", Social Work, Vol. 49, pp. 151-161, 2004.
DOI: <http://dx.doi.org/10.1093/sw/49.2.151>
- [20] E. K. Misener, "The image of social work in U.S. , UK, and Canadian newspapers",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USA, 2001.
- [21] B. Scott, G. Christine, "Directors and government must help improve social work's image, says MP", Community Care, pp.16-17. 2003.
- [22] J. Davenport "Image better than we think", Unpublished paper, 1997.
- [23] I. S. Yang,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4, No. 2, pp. 289-306, 1998.
- [24] S. G. Choi, I. S. Choi, S. J. Choi, H. S. Jo, H. R. Kim,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Nanam Books, 2005.
- [25] M. M. Young, "A Study of Influenc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on Identity of Professionals", Journal of Far East Social Welfare, Vol.5, pp. 103-117, 2009.
- [26] H. J. Lee, " Qualification System and Job Analysis for Social Worker: toward Realization of Qualification Grad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21, pp. 161-188, 2003.
- [27] M. E. Park, Intrinsic contemplation on backwardness of social welfare,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Vol.

2004, pp. 27-38, 2004.

- [28] C. D. Condie, J. A. Hanson, N. E. Lang, D. K. Moss, R. Kane, "How the public views social work", *Social Work*, Vol. 23, No. 1, pp. 47-52, 1978.
- [29] S. G. Yoo, "Korean College Students's Attitudes Toward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Psychiatric Help",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 17, No. 3, pp. 617-632, 2005.
- [30] E. S. Kim, "Study of Evaluation of Korea National Image Depend on Visual Image Analysis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0.
- [31] Y. M. Kim, Y. S. Kang, "Nurse's Image Perceived b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384-395,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84>
- [32] K. Godfrey, "Don't believe the hype", *Nursing Times*, Vol. 96, No. 28, pp. 28-29, 2000.
-

이 경 철(Kyung-Cheol Lee)

[중신회원]



- 2006년 2월 : 국립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6년 2월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0년 2월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평가, 교육, 보육, 경영, 복지의 산학협력 및 융합

김 유 미(Yu-Mi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교육